



비즈 트렌드 | 가잰비 '젤리', 편슈머 아이콘으로 주목

복숭아맛 참치회?...이색 젤리가 뜬다

세븐일레븐, 참치회를 젤리로 구현 CU는 '서주 아이스주'...뉴트로 매력 질스투어트X하리보 협업 상품 인기



LF 질스투어트스포츠X하리보 젤리 협업 상품, 참치회 모양을 구현한 세븐일레븐의 '참치회 젤리', 뉴트로 콘셉트의 CU '서주 아이스주 젤리'(왼쪽부터), 젤리가 '가잰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편슈머 아이콘으로 뜨고 있다. 사진제공 LF·세븐일레븐·CU

졸깃졸깃한 먹거리 젤리가 '가잰비(가격 대비 재미)'를 추구하는 편슈머 아이콘으로 주목받고 있다.

편슈머는 재미(fun)와 소비자(consumer)의 합성어로, 소비 과정에서 재미와 함께 남다른 경험을 원하는 소비층을 말한다. 유통업계에서는 편의점이 나섰다. 세븐일레븐은 참치회 비주얼을 그대로 구현한 '참치회 젤리'를 내놓았다. 횡집에서 사용하는 포장 용기를 활용했으며 참치회뿐 아니라 락교와 고추냉이 모양의 젤리까지 담았다. 참치 부위마다 딸기, 복숭아 등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장재운 세븐일레븐 상온식품팀 상품기획자는 "젊은 소비층을 중심으로 재미가 중요한 구매요인으로 뜨고 있다. 특별한 재미와 가치를 제공하는 이색 젤리 상품들을 지속 출시할 계획"

이라고 말했다.

CU는 전통의 브랜드 서주와 협업한 뉴트로 콘셉트의 '서주 아이스주 젤리'를 선보였다. 전지분유로 만들어 고소한 맛이 특징이다. 포장과 젤리 모양은 서주 아이스주 제품을 그대로 본뵈었다. 최정태 CU 스낵식품팀 상품기획자는 "중장년층 사이에서 비타민과 타우린

등을 함유한 기능성 젤리가 인기 간식으로 떠오르고 있는 점에 착안해 중장년층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뉴트로 콘셉트의 젤리 상품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패션업계도 동참했다. LF의 질스투어트스포츠는 올해 100주년을 맞은 젤리 브랜드 하리보와 협업한 상품을 선보



였다. 티셔츠, 모자, 양말, 샌들, 슬리퍼 등 다양한 아이템으로 구성했다. '즐거운 휴가'를 콘셉트로 하리보 젤리를 유쾌하고 스포티한 감각의 패션으로 만날 수 있다. 특히 하리보 젤리 모양과 다채로운 색상을 상품 디자인에 적용해 젊은 감각을 강조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한국야쿠르트, 유산균 앞세워 펫푸드 시장 공략 반려동물 영양간식 '잇츠온펫츠 펫쿠르트' 출시

한국야쿠르트가 유산균을 더한 반려동물 영양간식 '잇츠온펫츠 펫쿠르트'(사진)를 출시하며 펫푸드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5월 펫 브랜드 '잇츠온펫츠' 론칭과 함께 선보인 '잇츠온펫츠 수제간식 6종'에 이어 펫푸드 라인업을 확장하며 공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섰다.

새롭게 선보이는 제품은 '펫쿠르트 리브'와 '펫쿠르트 스낵볼 3종(베지, 미트, 씨푸드)', '펫쿠르트 덴탈스틱 2종(조인트, 스킨)' 등 총 6종이다.

핵심 제품은 '펫쿠르트 리브'다. 1포당 유산균이 100억 CFU(잔존유산균수) 투입된 반려동물 전용 프로바이오틱스다. 한국야쿠르트의 '특허 HyPet 유산균'이 투입되어 있어 하루 한 포로 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 분말 타입으로 간편하게 사료나 간식에 뿌려 급여하면 된다.

'펫쿠르트 스낵볼 3종'은 채소, 육류, 해산물 원재료를 한국야쿠르트 유산균(사균제)을 더한 반려견 영양간식이다. 반려견의 기호에 따라 제품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펫쿠르트 덴탈스틱 2종'은 구강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반려견용 스틱 껌이다. 유산균(사균제)과 구강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보조성분이 첨가되어 있다.

신승호 디지털마케팅부장은 "고객 맞춤형 특화상품을 지속적으로 선보이며 '잇츠온펫츠'를 종합 펫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IP기반 모바일게임 흥행...하반기도 신작 '러시'

넷마블 '스톤에이지 월드' 18일 출시 넥슨 '바람의나라:연' 사전등록 시작



넷마블이 PC온라인게임 '스톤에이지' 콘텐츠를 모바일로 재해석해 선보이는 턴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스톤에이지 월드'. 사진제공 넷마블

최근 출시된 '카트라이더 러쉬플러스'와 '뮤 이그니션' 등 인기 지적재산권(IP) 활용 모바일게임들이 앱 장터에서 매출 순위 상위권을 차지한 가운데, 또 다른 인기 IP 기반 모바일게임들이 연이어 출시를 앞두고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넷마블은 '스톤에이지 월드'를 18일 출시한다. PC온라인게임 '스톤에이지' 콘텐츠를 모바일로 재해석한 턴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이다. 3D 그래픽으로 원작의 감성을 담았다. 250마리 펫을 수집하고, 다양한 전투와 퀘스트를 즐길 수 있다. 다른 이용자와 교류하

는 재미를 주는 것도 특징이다. 넥슨은 17일 '바람의나라:연'의 정식 론칭 사전등록을 시작했다. 1996년 출시된 P

C온라인게임 '바람의나라' IP를 기반으로 한 MMORPG다. 원작 특유의 조각감과 전투의 묘미를 모바일에 맞게 구현한 것이 특징이다.

선데이토즈는 '애니팡4'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사전 예약을 받고 있다. 2012년 첫 출시 후 9년째 인기를 얻고 있는 애니팡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캐릭터들이 삽화로 등장하는 '애니팡 라이브'를 비롯해 길드형 시스템 '팸', 실시간 대전 '애니팡 로얄' 등 다양한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다.

그라비티는 '라그나로크 오리진'을 7월 출시할 예정이다. PC온라인게임 '라그나로크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MMORPG로, 17일부터 19일까지 비공개 테스트를 진행한다. 위메이드는 '미르4'의 티저 사이트를 15일 공개했다. '미르의 전설2'를 계승한 정식 후속작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라이엇게임즈, '발로란트' e스포츠화 시동 라이엇게임즈는 슈팅 게임 '발로란트'의 e스포츠화를 위한 첫 단계로 '발로란트 이그니션 시리즈'(사진)를 발표했다. e스포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20여 개 주주사와 함께하는 공식 프로그램이다. 재능 있는 플레이어를 발굴하고 인지도를 쌓기 위해 기획했다. 이그니션 시리즈는 '유리피안 G2 e스포츠 인비테이션'과 'RAGE 발로란트 재팬 인비테이션'을 시작으로 19일 막을 올린다. 이후 한국, 북미, 브라질,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시아, 오세아니아, 러시아, 터키, 중동 등 세계 곳곳에서 이그니션 시리즈 대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 역시 이그니션 시리즈 대회 파트너 선정이 완료됐다.

김명근 기자

경제현장.jpg



"휴대용 핸드미스트로 위생 관리하세요" 서울 압구정 갤러리아름미술관이 휴대용 핸드미스트인 터치랜드의 '파워미스트'를 판매한다. 액체형 스프레이 미스트로 미세 안개처럼 분사돼 끈적임 없는 부드러운 보습 유효력을 발휘한다. 청결한 손 관리에 효과적인 에틸알코올과 미국 환경단체 EWG의 그린 등급 원료인 글리세롤 등이 주요 성분이다.

정정욱 기자, 사진제공 터치랜드 갤러리아

"전세대출 받아 3억 넘는 아파트 사면 대출 회수"

(투기지역·투기 과열지구)

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

수도권 대부분 지역 규제지역 지정 담보 대출 요건 강화해 겹투자 차단 중부세 인상해 법인 통한 투기 제동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강력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고, 겹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차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요건을 강화한다. 수도권 재건축 단지 분양권을 받으려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하는 의무도 생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2개월가량 하락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최근 들어 다시 상승할 조짐을 보이고, 비규제 지역 집값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가 신속하게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우선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의 김포·파주·연천·동두천·포천·가평·양평 등 일부 자연보전권역과 접경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이, 인천은 강화와 옹진을 제외한 모든 지역

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대책으로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됐다. 지방에서는 최근 집값 상승세가 뚜렷한 대전과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됐다. 대전은 모든 지역이, 청주는 동지역과 오창·오송읍만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도 대폭 확대됐다. 경기 성남 수지구, 수원, 안양, 안산 단원구,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지역과 인천 연수·남동·서구, 대전 동·중·서·유성구 등이 새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겹투자를 막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보증 기준도 강화됐다. 현재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대출을 받은 후 9억 원 초과 주택 구입 시에는 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하고 있다. 앞으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신규 구입하는 경우도 전세대출 보증 제한 대상에 추가한다.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 조치한다.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수요를 막기 위해 과세를 대폭 늘리는 대책도 내놨다.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중부세율을 2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해 단인세율을 적용한다. 향후 모든 지역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금지된다.

정정욱 기자 sadzoo@donga.com

네이버웹툰, 중소 게임사와 '게임 챌린지' 개최

네이버웹툰은 중소 게임사와의 상생과 창의적 아이디어 발굴을 목적으로 '네이버웹툰 게임 챌린지'를 개최한다. 접수 기간은 22일부터 8월 31일까지다.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네이버웹툰이 제공하는 22개 웹툰 원작 지적재산권(IP)을 기반으로 게임을 제작해 제출하면 된다. 네이버웹툰은 서류 심사를 통한 모든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이후 완성도에 따라 톱10 게임사를 선정, 내부 심사를 통해 톱5와 톱3를 차례로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 심사 발표 및 시상식은 내년 1월 12일 진행된다.

김명근 기자